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정치인은 정치의 본뜻대로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참으로 기괴하다. 수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석방하라고 외치는데 등의 모습이, 현행법상 전혀 불가능한 일임에도

특히 사면은 재판이 끝나야 가능하다. 석방은 사법부가 할 일이고 대통령 말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말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그런 불법행위가 가능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유·무형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판받고 있는 것 아닌가. 현 정권도 그러한 말인가.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황교안 대표는 검사출신이다. 그런데도 그런 희한한 실들이 나와야 되겠는가. 그들의 후안무치한 이중성을 접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겠는가.

누구나 스스로 원해서 출생한 사람은 없다. 숙명적으로 태어났

을 뿐이다. 기왕에 태어난 것 잘 살고는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적절해야 한다. 그런데 눈만 뜨면 정치권은 아귀다툼만 벌이고 있다. 그 틈새에서 고통 받는 건 국민뿐이다. 그러면서도 입만 벌이면 국민을 위해 서란다. 참으로 독사보다도 더 지독한 독살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공자 문하에서 현인 반열에 오른 자공은 어느 날 공자에게 정치가 뭇이라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양식을 풍족하게 하고 군비를 충분하게 하고 백성이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자공이 "만일 부득이하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라고 다시 물었을 때 "군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만일 부득이하게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버린다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라고 또 물었다. "양식을 버려야 한다. 예로부터 모두 죽기 마련인데, 만일 백성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 박 전 대통령은 중요한 신뢰를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것이다. 지금 한국당의 황 대표는 그런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다. 나 원내대표 역시 그 시절부터 국회 의원을 하고 있었는가.

때문에 지금 야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정치에서 떠났어야 했다. 책임을 함께 해야 하는 폐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날뛰고 있다. 자숙의 모습이 없다. 이러니 한국당에서 폐족다운 소리 들만 나오는 것 아닌가. 5·18 범국민연 등을 비롯해서, 미세먼지

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생겼는가. 그렇지 않은가. 특히 G2의 한축인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정권은 누군가. 바로 박 정권 아니던가. 그 여파로 중국 관광객 급감은 물론 기타 경제여건도 최악의 길을 걷고 있잖은가.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이민족이나 회복해 가잖은가.

각설하고 한국당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은 시급하다. 하지만 흐지부지 상태다. 오죽했으면 조경태 최고위원이 한국당 변화의 첫 단추가 5·18이라면 시름시름속 속하는 마음으로 빨리 처리하라고 했을까.

사실 정부·여당 입장에서 미처리 상태로 이어지길 바랄지도 모른다. 그래야 내년 총선까지 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깔끔하게 처리해버린다면 역으로 우파는 물론 중도층까지 오히려 한국당으로 흡수돼 버릴 수 있다.

그런데 사실 건전한 우파는 필요하다.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해서라도. 어느 한쪽만의 독주는 정치의 타락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社說

화물차 위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더니 기대가 크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 수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4월5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비 불량차량을 대상으로 정비 명령과 임시검사 제도를 활용해 차량 점검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사망사고가 집

중되는 심야시간대에는 주기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 순찰로 졸음운전과 과속을 예방한다.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가 잦은 금요일은 '집중단속 데이(day)'로 지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경부·중부내륙·서해안·중부고속도로에서 임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한국도로공사 협조를 받아 명절에만 이용하던 드론(무인기)도 금요일에 함께 투입한다.

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과속 측정 장비를 임행순찰차에 장착해 난폭운전 단속에 활용하고, 휴게소·블레이크 주변 음주단속과 주류 판매행위도 단속한다.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취약지점 개선에도 나선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로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이 화물차의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夫唱婦隨

자아비 부
부를 창
며느리 부
따를 수

夫唱婦隨

▷ 뜻: 남편(男便)이 주장(主將)하고 아내가 이에 따름. 가정(家庭)에서의 부부(夫婦) 화합(和合)의 도리(道理)를 이르는 말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봄철 산불화재의 주범은 부주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눈 소식이 적었던 한해였다.

그로인해 방관길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사회취약계층도 한결 수월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농어촌 여가져기서 아름다운 산림을 훼손하는 무서운 산불이 살며시 고개를 든다.

산림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산불발생건수는 총 496건으로 2월~3월 사이에 213건(42.9%)의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

생했고 이중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이거나 논밭두렁·쓰레기소각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했다.

특히 농어촌에서 행하는 쓰레기·논밭두렁 소각은 관계기관에서(관할지자체, 소방서) 홍보하고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 중순 장흥군에서도 농부산불소각 중 아산으로 번지는 것을 진화하다 82세 할머니가 소사한 임야화재가 있었다.

이렇듯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행하는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봄철산불은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하기에 관계자의 깊은 주의가 요구되며 이것만은 꼭 실천했으면 한다.

첫째,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는 산림인접 지역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시 소방관서에 신고한 후 공동으로 태우기를 실시하고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을 선정하는 등 기후여건을 고려했으면 한다.

둘째, 입산자의 살화방지를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 산행 제한을 하고 입산 시에는 라

이터, 성냥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셋째,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서 무심코 던진 담뱃불이 대형산불이 되기도 하는데 운전자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준수해주었으면 한다.

산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어준다.

또한 우리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산불로 인해 벌거숭이가 된 산을 다시 복원하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인력 예산이 소요되며 그 비용은 모두 우리가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한지석 / 장흥 관산119센터 소방장

Advertisement for 'Korea's Happiness' featuring two women and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apped our positions?). Includes contact info for '한국언론진흥재단'.